협동조합 자금조달 수단 비교

2021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(자금조달) 쿠피협동조합&쿱비즈협동조합

<표1> 자금조달 수단 비교

구분	조합원출자금	우선출자증권	조합원차입금	은행차입금
위험	높음	조합원출자금에 앞서 상환가능하지만 모든 채무에 대해 후순위	자기자본보다는 선순위이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차입보다는 후순위	가장 낮음. 일반적으로 청산 시 가장 먼저 상환됨.
수익	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없음. 다만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의할 수 있음.[1]	변동할 수 있음. 일반적으로 8% 내에서.[2]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기대배당률을 게시하지만 배당선언은 협동조합의 수익성에 달려 있음. 배당은 순이익의 다른 할당보다 우선권을 가짐.	이자율은 고정. 계약 시 설정됨. 때로는 조합원에게 이자 지급은 수익성이 갖춰지기 전까지 선순위채권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.	대출약관에 따라 고정적이고 정기적임. 수익성에 따라 변동되지 않음.
상환	대부분 비유동적.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할 때 상환됨.	일반적으로 상환을 위한 목표기간을 가짐. 이는 계약조건과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함.	차입금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일자	차입금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일자
통제권	완전. 출자증권의 소유자만이 협동조합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.	합병과 청산에 대해 제한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. 때때로 우선출자증권의 구매는 조합원에게 한정됨.	없음. 조합원일 경우는 예외. 부채는 통제권이 없음.	없음. 부채는 통제권이 없음.
변동 가능성	가장 변동이 큰 자본	두 번째로 변동이 큰 자본	변동가능한 자본. 다만 자기자본보다 수익률과 상환일자가 훨씬 고정적임.	가장 변동이 덜한 자본. 이자율과 상환일자가 고정임. 그 밖의 계약조건과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.

1)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원출자금의 출자배당은 출자금의 10% 내에서 가능.
2) 미국의 상황임.

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세부방법은 상시상담(coop.go.kr)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